

# 김영집 대외부총장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선임

- 2023년까지 2년간 광주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

-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김영집 대외부총장이 지난 4월 14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에 선임됐다.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육성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대덕·광주·대구·부산·전북의 5개 특구와 전남 나주 등 12개 강소특구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관할하고 있으며 그 중 광주연구개발특구는 2011년 지정되어 광주 광산구·동구·북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18.73km<sup>2</sup> 범위에서 지난 10년간 총 1751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전 2709건, 기술창업 116건, 투자유치 407억 원, 일자리창출 1177명의 성과를 만들었다.
- 특히 광주특구는 올해 인공지능융합단지,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성 등 첨단3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며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중심지 도약을 앞두고 있다.
- 김영집 대외부총장은 “최근 광주전남특구를 대변할 이사가 없었는데 진흥재단과 협력하여 광주전남특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 김 대외부총장은 2023년까지 2년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된다. <끝>

[사진설명]



▲ 김영집 대외부총장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에 선임